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의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신 윤 정[†]
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동성애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공감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조절된 매개효과 모델을 검증하였다. 중·고등학교 선생님 25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 정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즉,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는 정서적 공감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학교장면에서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 관련 연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한 조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중·고등학교 교사,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정서적 공감, 동성애공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윤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상담전공,
(0250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E-mail: yshin@uos.ac.kr

서론

동성애공포(homophobia)는 동성애를 포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호모포비아 혹은 동성애 혐오라고도 불리운다(Wright, Adams, & Bernat, 1999). 이 용어는 Wineberg(1969)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동성애는 정신장애가 아니라 정신훈학과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들(Herek, 1994)이 보고되고, 동성애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가 문제라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동성애공포는 성소수자(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의미하여,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LGBT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한인섭, 양현아, 2002)에 대한 차별, 폭력 및 인권 침해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동성애공포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및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D'haese, Dewaele, & Houtte, 2016). 특히 학교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가장 심각한 사회 공간 중 하나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놀림, 소문 퍼뜨리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사회적 고립,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UNESCO, 2012). 또한 영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영국의 중등교사의 98%와 초등학교 교사의 40% 이상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인신공격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Guasp, 2009).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강병철과 하경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들 중 절반 이상이 욕설과 같은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가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 소지품의 훼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구타나 무기 등을 사용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보고한 정도도 10% 정도였으며, 약 30% 정도는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정체성 폭로인 아웃팅(outing)과 그에 따른 부당한 반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및 수면 장애등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자해 및 자살로까지 이어진다(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 & Azrael, 2013). 또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무기력, 낮은 학업 동기 등을 경험하고 학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spelage, Aragon, & Birkett, 2008). 이와 비슷하게, Murdock과 Bolch(2005)의 연구에서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성소수자의 학업 중도 탈락, 약물중독, 비행 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괴롭힘 피해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즉,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도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으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Bollmer, Milich, Harris, & Maras, 2005). 그러나 이러한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는 성소수자 학

생이 경험하는 동성애 혐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Murdock과 Bolch(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교 적응, 심리적 적응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Mufioz-Plaza, Quinn와 Rounds(2002)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학업 및 심리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성애공포에 대한 학교장면에서의 적절한 개입 및 교사들의 대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교에는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및 평등 관련 교육들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내면화하여 성소수자 학생에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14)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연수나 직무 연수 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및 평등 관련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21%에 불과하였고, 79%의 참여자들은 단 한 번의 관련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의 절반이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문항에 동의하였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와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면 이성애자 학생도 동성애자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항에 각각 37%와 18%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

정, 즉 동성애공포는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ng & Garbarino, 2012). 따라서 교사의 동성애공포 정도와 이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동성애공포 혹은 동성애에 관련된 편견 및 태도 자체를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며(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특히 현직 교사들의 동성애공포에 대한 인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동성애공포와 이에 미치는 요인, 특히 권위주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인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권위주의 성향과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김기환, 김지경, 2012; 서영석 외, 2007). 아직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 서양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Choi & Harwood, 2004). 교사들의 권위주의 성향과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가치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위계적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 동안 교사의 권위주의가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 권위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병승,

2011), 권위주의와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공감은 다양한 직업군(예. 상담자, 기업 CEO)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교사란 특정 직업군에 있어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현장, 특히 향후 교사 대상 소수자 인권 및 평등 관련 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위주의 성향: 동성애공포를 예측하는 요인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성향은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권한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경향성을 의미한다(Adorno, Frenkel-Brunswick, Levinson, & Sanford, 1950). Adorno와 동료들(1950)의 권위주의 성격이론에 의하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기존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기존 관습, 관행 및 사회 규칙을 따르려는 성향이 강하며 기존 권위나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적대적이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문화적인 규범과 사회적인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고수하려고 하며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ltemeyer, 1996).

실제로 여러 경험연구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Altemeyer(1998)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흑인, 여성, 미국 원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민경환(1989)과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와 홍영오(1999)가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도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회적 소수 집단(예.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고정 관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 성향자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예.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을 토대로 평가하며(민경환, 1989),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나누고 그 서열에 따라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 성향은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서도 주목 받아왔다(서영석 외 2006; Herek, 1988; Parrott, Peterson, Vincent, & Bakeman, 2008; Whitley & Lee, 2000). 예를 들어, Altemeyer(1996)의 연구와 Whitley와 Lee(2000)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동성애자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높은 수준의 동성애공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ristopher & Mull, 2006; Haslam & Levy, 2006; Roets, Van Hiel, & Cornelis, 2006). 하지만 아직까지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공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데, 한국의 문화적 특성 상 교사의 권위와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관계가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전통적 성역할태도: 권위주의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살펴보았다.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개인의 역할이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전통적 그리고 근대적(혹은 진보적) 태도로 나뉘는데, 전통적 성역할 태도란, 남성은 사회활동과 경제적인 영역을, 여성은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영역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는 믿음을 의미한다(Basow & Johnson, 2000). 이에 반해, 근대적 성역할 태도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이나 경제적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칭한다(이현주, 2009). 성역할태도는 생득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미디어, 문헌, 대인 관계 내에서 무엇이 사회규범 상에서 용인 되는 성역할인지가 사회화되어 형성된다(O'Neil, 2008; Schope & Eliason, 2004).

지금까지 성역할태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역할태도가 개인의 심리적응, 진로 발달, 결혼만족도,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자녀 양육태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최근에는 동성애공포에 대한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는 사회에서 표현되는 보수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Herek, 1986; Whitley & Lee, 2000). 실제로 일련의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강할수록, 동성애공포 수준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Cotten-Huston & Waite, 2000; Ficarroto, 1990). 예를 들어, Alden과 Parker(2005)가 1996-2000년 사이의 사회 조사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전역의 73개의 도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ite와 Whitley (1996)는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를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는 평균 .44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Whitley와 Lee(200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평균 .52의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Duncan, Peterson, 그리고 Winder(1997)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Whitley와 Lee(2000)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하게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동성애자나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로 지각하여 이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권위주의 성향은 동성애공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강하게 함으로써 동성애공포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까지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소수 연구 중 하나로, Whitley와 Aegisdóttir(2000)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와 비슷한 개념인 사회적 우월성(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사회적 우월성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미 성격처럼 굳어져 수정하기 힘든 권위주의 성향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고 수정이 용이한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교사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할 것이다.

정서적 공감: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공감, 특히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을 살펴보았다. 공감이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하여 그 사람처럼 느끼는 타인 지향적인 정서 반응으로 정의된다(Batson et al., 1997). 공감은

Rogers(1957)가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한 이후,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공감은 대인관계 유능성, 이타행동, 협동성 및 의사소통능력과 정적 상관을 갖는 반면에 공격적인 행동이나 대인관계 갈등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Singer, 2006).

공감은 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고 있는데,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인반응성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Davis, 1983)이다. IRI에서는 공감이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는데,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감정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능력과 타인에 대해 느끼는 동정 그리고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느끼는 공포, 불안 정도를 의미한다. 초기의 공감 문헌에서는 주로 인지적 공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지적 공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배미정, 조한익, 2014).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아닌 정서적 공감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동성애공포라는 개념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기저에 내재된 불쾌감, 혐오, 동정심 그리고 동성애가 전염되거나 동성애가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을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Weinberg, 1971). 따라서 인지적 공감 보다는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 공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에 비해 사회적 적응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Davis, 2004),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 소수자에 대한 감정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 및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Davis, 2004), 공감이 타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 상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어, Burkard와 Knox(2004)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이 낮은 사람은 유색인종의 인종 관련 경험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alinsky와 Ku(2004)의 연구에서는 공감이 높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Galinsky, Ku 그리고 Wang (2005)은 공감이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감이 높은 사람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Batson과 동료 연구자들은(1997, 2002) 공감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태도 효과의 세 단계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이 모델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 수준을 조작한 후, 낙인된 집단(에이즈, 노숙자, 살인자,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이 제안한 세 단계 모델에 따라, (1) 낙인 집단의 일원인 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참여자의 공감 감정이 증가되고, (2) 이러한 공감 감정이 그 특정 개인의 안녕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촉진시키며, (3) 특정 개인의 안녕감을 그 개인이 속한 낙인 집단 전체에 일반화시켜, 낙인 집단의 안녕감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Batson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한 번 개인이 낙인집단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민감해지게 되면, 이후 낙인 집단 뿐만 아니라, 비낙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도 공감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공감의 관점을 사용하거나 차별의 행위에 대해 읽게 함으로써, 차별경험의 희생자를 생각해 보게 하였을 때, 공감능력이 증가하고(Finlay & Stephan, 2000),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과정을 수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덜 편견적인 반응 보임(Galinsky & Moskowitz, 2000)을 확인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공감은 동성애공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 Brems와 Alford-Keating(1997)은 동성애공포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낮은 공감능력을 꼽았고, Burke 외(2015)의 연구에서도 동성애자와 접촉한 경험 그리고 공감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ahlund(2015)는 마음챙김이 동성애 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능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동성애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하여 Dasgupta와 Rivera(2006)는 자동적인 편견(automatic prejudice)과 의식적인 과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의식적으로 평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인 편견이 그대로 표현되고, 차별적 행동이 절제되지 않은 반면에, 의식적으로 평등에 대해 생각한 경우에는 편견이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사회화의 산물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동성애공포 또한 자동적인 편견(automatic prejudice)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서 공감 증가는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로, Sakalli-Ugurlu, Yalcin, 그리고 Glick(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을 예측하는데, 공감이 높은 사람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성폭력 피해자를 덜 비난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공감이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가령, Teachman, Gapinski, Brownell, Rawlins와 Jeyaram(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과제중에 대한 편견은 공감을 통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감의 효과는 과제중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또한 Turner, Hewstone과 Voci(2007)의 연구에서는 공감 보다는 편견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접촉한 경험이 없을 때 정서적 공감은 오히려 동정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특히 한국의 교사들이 동성애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많지 않으며, 동성애 관련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들의 공감능력과 동성애공포에 대한 관계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요약하면,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동성애공포를 초래할 수 있지만, 만약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온정과,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경험할 수 있다면, 즉, 정서적 공감이 높다면, 동성애공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공감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없고, 관련 해외 연구에서도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서적 공감과 동성애공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밝혀진다면, 교사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어떠한 정서적 공감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매개로 동성애공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정서적 공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정서적 공감이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를 매개할 것이다(매개효과). 둘째, 정서적 공감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정서적 공감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것이다(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가설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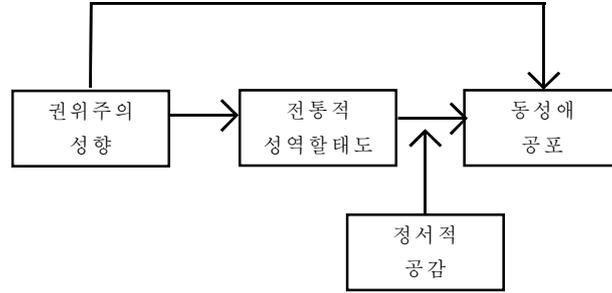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절된 매개모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3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233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55명(66.5%), 남성 87명(33.5%)이었고, 연령은 20대 22명(9.4%), 30대 91명(39.1%), 40대 74명(31.8%), 50대 42명(18.0%), 60대 4명(1.7%)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은 평균 13.64년($SD=9.19$)이었고, 종교는 불교 23명(9.9%), 개신교 64명(27.6%), 천주교 43명(18.5%), 무교 101명(45.3%), 기타종교 1명(4%)이었다.

측정 도구

권위주의 성향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민경환(1989)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5문항으로, 9개의 하위요인인 구성요인인 인습주

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내성주의, 미신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性)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점수가 아닌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민경환(1989)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종희(1983)가 Osmond와 Martin(1975)의 Sex-Role Orientation(SRO)과 Mason과 Bumpass(1975)의 Sex-Role Ideology Scale(SRI)에서 선별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성역할 태도 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으로,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종희(1983)의 연구에

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 공감척도, Davis(1980)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Byrant(1982)의 정서 공감척도를 바탕으로 전병성(2003)이 개발한 공감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타인 지향적 공감,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동정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느끼는 공포, 불안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병성(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동성애공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동성애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과 Ricketts(1980)가 개발하고 김용희와 반건호(2005)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와 접촉하거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혐오감, 불안,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용희와 반건호(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석(2010)이 개발 및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2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과 인상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점수가 아닌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0~.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 분석으로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 다음으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평균중심화 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의 Macro(Praecher, Rucker, & Hayes, 2007)를 사용하여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

효과가 정서적 공감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동성애 학생에 대해 편견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권위주의 성향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정서적 공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정서적 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동성애공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과 동성애 공포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 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 공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 공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2단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간접)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표 1.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5
1. 사회적바람직성	-	.41	.01	.46**	.09
2. 권위주의 성향		-	.58**	-.12	.21**
3. 전통적 성역할태도			-	-.17**	.19**
4. 정서적 공감				-	-.04
5. 동성애공포					-
<i>M</i>	.57	2.36	1.85	3.67	3.32
<i>SD</i>	.25	.45	.56	.34	.65

***p* < .01

표 2.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경로	<i>b</i>	<i>SE</i>	β	<i>t</i>
1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태도	.418	.038	.581	11.059***
2	권위주의 성향→ 동성애공포	.207	.062	.212	3.361***
3	권위주의 성향→ 동성애공포	.157	.076	.161	2.068*
	전통적 성역할태도→ 동성애공포	.120	.105	.089	1.143

* $p < .05$, *** $p < .001$

표 3.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부트스트래핑 효과

	표준화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동성애 공포	.05*	.03	.003	.131

* $p < .05$

로 해석한다(Pr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표 3과 같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상한값이 각각 .003-.131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면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하고,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로 연결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 분석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Preacher와 Hayes(2004)에 제안한대로 매개모형 검증 이후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정서적 공감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동성애공포를 종속변인으로, 정

서적 공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정서적 공감이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정서적 공감이 낮은(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하) 집단과 높은(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서적 공감이 낮은 집단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따라 동성애공포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적

표 4. 정서적 공감의 조절 효과 분석

단계		<i>b</i>	<i>S.E.</i>	β	<i>t</i>
1	사회적 바람직성	1.14	1.03	.09	1.40
	$R^2 = .01$				
2	사회적 바람직성	1.75	1.14	.11	1.54
	전통적 성역할태도	3.06	1.03	.19	2.96**
	정서적 공감	-.68	1.16	-.04	-.59
$R^2 = .05, \Delta R^2 = .04$					
3	사회적 바람직성	1.64	1.14	.11	1.44
	전통적 성역할태도	2.90	1.03	.18	2.81**
	정서적 공감	-.71	1.15	-.04	-.61
	전통적 성역할태도X정서적 공감	1.73	.89	.13	1.96*
$R^2 = .07, \Delta R^2 = .0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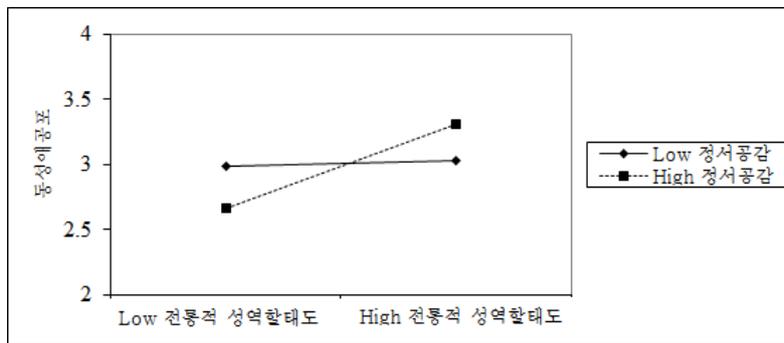


그림 2.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정서적 공감의 상호작용효과

공감이 높은 집단은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성애 공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남을 시사한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앞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인 정서적 공감의 평균값과 $\pm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낮은, 중간, 높은)으로 나누고, 각 집단마다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통해 동성애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혹은) 간접 효과가 다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정서적 공감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인: 전통적 성역할태도			종속변인: 동성애공포		
	<i>b</i>	<i>S.E</i>	<i>t</i>	<i>b</i>	<i>S.E</i>	<i>t</i>
사회적 바람직성	-.051	.106	-.482			
권위주의 성향	.419	.038	11.033***	.145	.075	1.931*
전통적 성역할태도				.097	.101	.927
정서적 공감				-.184	.219	-.842
권위주의X정서적 공감				.033	.015	2.317**

조절변인	수준	간접효과 상관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정서적 공감	낮은
	중간	.041	.048	-.054	.136
	높은	.114	.059	.014	.248

p* < .05, *p* < .01, ****p* < .001

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거쳐 동성애공포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공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적 공감이 높을 때만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면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해지고,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동성애 공포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통해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정서적 공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권위주

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 및 이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를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성애공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 성향의 동성애공포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일련의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서영석 외, 2006; Parrott et al., 2008).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

고 따르는 것을 중요시하고, 동성애자가 그러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려는 사람이라고 지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서영석 외, 2006),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와의 관계는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려는 경향성이 높으며 자신과 다른 외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어 이들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Altemeyer, 1996; Christopher & Mull, 2006; Haslam & Levy, 2006; Roets et al., 2006). 본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권위주의 성향이 동성애공포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교사들의 동성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Duncan et al., 1997; Whitley & Ægisdóttir, 2000). 예를 들어, Duncan과 그의 동료들(1997)은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하고, 정치적 활동에서 여성을 덜 중요시 생각하고, 권위에 더 순응적이며, 낙태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는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할수록 보수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며, 반동성애자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Altemeyer, 1996; Goodman & Moradi 2008; Whitley & Ægisdóttir, 2000; Whitley & Lee, 200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교사들의 동성애공포를

다를 때,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학교의 교육 내용에서는 양성평등을 지양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교사의 의식이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이자명, 두경희, 2015). 교사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성애공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성역할에 대한 자신의 전통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점검하고 이러한 사고가 자신과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동성애공포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낮을 때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따라 동성애공포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서적 공감이 높을 때는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성애 공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 공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기술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권남희, 남상인, 2015)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공감의 조절 효과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따라 정서적 공감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Batson 외(199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늘 이들에 대한 이해나 수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특히 평소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 되어, 방어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교사 중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높은 교사는 동성애자들을 전통적인 규범(예.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여성은 자녀 양육을 우선시해야 한다)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 또는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정서적 공감이 높은 교사는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동정할 수 있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한다면(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이러한 감정들이 강한 동성애 공포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공감은 자신의 태도나 신념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Hoffman, 2000),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교사 중 정서적 공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토대로 동성애자들의 상황을 지각할 때 동성애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함으로써, 질병에 걸린 이들에 대해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동성애를 치료 가능한 질병처럼 인식하는 편견들이 만연해 있고(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이는 자신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도 일치되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더욱 동성애라는 질병에 대한 불편감으로 이어져 동성애 공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대부분 공감 척도가 공감과 더불어 동감(sympathy, 타인의 삶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연민 혹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측정한다는 Vescio, Schrist와 Paolucci(2003)의 주장과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안녕을 걱정하는 공감적 관심을 포함한다는 Davis(1983)와 Hoffman(2000)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공포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정서적 공감이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할 때 동성애공포의 정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정서적 공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공감이 높은 사람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면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해져 동성애 공포가 높지만, 정서적 공감이 낮은 사람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해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하다 하더라도 동성애 공포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공감이 높은 경우, 권위주의 성향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거쳐 동성애 공포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조절효과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의 정서적 공감을 높이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과제중이지 않는 사람의 공감을 높이는 것이 과제중에 대한 편견을 낮추지 않는다는 Teacherman 등(2003)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는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보고하였고, 약 5%의 참여자만이 동성애자와 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서적 공감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지 못하고, 앞서 밝힌 대로 오히려 연민이나 동정과 같은 감정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정서적 공감이 높지 않는 사람의 경우, 동성애자의 감정이나 안녕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 이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Turner와 그의 동료들(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성애혐오를 줄이는데 있어 동성애자와의 개인적인 접촉 그리고 이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정서적 공감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 공감 보다는 인지적 조망 수용 능력(자기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Vescio et al., 2003), 교사들의 동성애혐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동성애자의 관점에서 동성애라는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

다. 본 연구 결과의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사들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나 권위주의 성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 척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동정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성애집단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감능력이 혼용되어 같이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동성애 집단에 대한 공감을 동감과 구분하여 측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동성애공포 및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였다. 비록 사회적 바람직성을 같이 측정하고 통제하였으나, 사회적 바람직성 또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개인이 자신의 믿음과 태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나타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의 정도와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개인으로 보이고 싶은 의도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McDaniel, Beier, Perkins, Goggin, & Frankel, 2009).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와 관찰과 같은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매개, 조절 및 매개된 조절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은 동성애공포에 대해 많은 설명량(약 7%)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성애공포를 예측하는 다른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계속 실시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공포를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서적 공감보다는 인지적 조망 수용 능력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Vescio et al., 2003),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및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적 조망 수용이 완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동성애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가정하고 검증하는 첫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동성애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고,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정서적 공감에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성역할 태도와 동성애공포를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특히 교사들의 동성애공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및 예방을 위해서는, 성격으로 고착된 권위주의 성향이나 정서적 공감 능력의 향상 보다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대한 자각과 양성성에 대한 교육 등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권남희, 남상인 (2015). 부모의 양육태도, 친사회 행동 및 공감적태도가 청소년의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 189-217.
- 김기환, 김지경 (2012). 교사의 권위주의와 자기에 성향이 학생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교원교육*, 28, 49-73.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 1-39.
- 김용희, 반건호 (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27-336.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 2417-2435.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213-237.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177-199.
-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권위주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19-221.
- 이병승 (2011). 교사의 실질적 권위와 그 정당화 논의. *교육연구*, 25, 1-18.
- 이자명 두경희 (2015).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 591-614.
- 전병성 (2003).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중희 (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성소수자연구회.
- 한인섭, 양현아 (2002).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 Alden, H. L., & Parker, K. F. (2005). Gender role ideology, homophobia and hate crime: Linking attitudes to macro-level anti-gay and lesbian hate crimes. *Deviant behavior*, 26, 321-343.
- Almeida, J., Johnson, R. M., Corliss, H., Molnar, B. E., & Azrael, D. (2013). Emotional distress among LGBT youth: The influenc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8, 1001-1014.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
- Basow, S. A., & Johnson, K. (2000). Predictors of homophobia in female college students. *Sex Roles*, 42, 391-404.
- Batson, C. D., Chang, J.,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d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56-1666.
-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 Blashil, A. J., & Wal, J. S. V. (2010). Gender role conflict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sensitivity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gay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9, 26-39.
- Bollmer, J. M., Milich, R., Harris, M. J., & Maras, M. A. (2005). A friend in need: The role of friendship as a protective factors in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701-712.
- Burkard, A. W., & Knox, S. (2004). Effect of Therapist Color-Blindness on Empathy and Attributions in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87-397.
- Burke, S. E., Dovidio, J. F., Przedworsku, J. M., Hardeman, R. R., Perry, S. P., Phelan, S. M., Nelson, D. B., Burgess, D. J., Yeazel, M. W., & van Ryn, M. (2015). *Do contact and empathy mitigate bias against gay and lesbian people among heterosexual medical students? A report from medical students CHANGES*.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hoi, M., & Harwood, J. (2004). A hypothesized model of Korean women's responses to abus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5, 207-216.

- Christopher, A. N., & Mull, M. S. (2006). Conservative ideology and ambiva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23-230.
- Cotton-Houston, A. L., & Waite, B. M. (2000). Anti-homosexual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Predictors and classroom interven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38, 117-133.
- Dasgupta, N., & Rivera, L. M. (2006). From automatic antigay prejudice to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conscious beliefs about gender an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2), 268-280.
- Davis, K. C. (2004). Oprah's Book Club and the politics of cross-racial empath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7(4), 399-419.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p.85.
- D'Haese L., Dewaele, A., Houtte, M. V. (2016). Homophobic violence, coping style, visibility management, and mental health: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63, 1-25.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s: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 41-49.
- Espelage, D. L., Aragon, S. R., & Birkett, M. (2008). Homophobic teasing, psychological outcome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at influence do parents and schools have? *School Psychology Review*, 37, 202-216.
- Ficarrotto, T. J. (1990). Racism, sexism, and erotophobia: Attitudes of heterosexual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19, 111-116.
- Finlay, K. A., & Stephan, W. G. (2000).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e Effects of Empathy on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720-1737.
- Galinsky, A. D., & Ku, G. (2004). The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on prejudice: The moderating role of self-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594-604.
- Galinsky, A. D., & Moskowitz, G. B. (2000). Perspective-taking: decreasing stereotype expression, stereotype accessibility, and in-group favori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08-724.
- Goodman, M. B., & Moradi, B. (2008).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lesbian and gay persons: critical correlates and mediated rel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371-384.
- Guasp, A. (2009). *The teachers' report: Homophobic bullying in Britain's schools*. London: Stonewall.
- Haslam, N., & Levy, S. R. (2006).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471-485.
- Herek, G. 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563-577.
-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 451-477. 6
- Herek, G. M. (1994). Assessing heterosexuals'

-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TLG scale. In B. Greene & G. M. Herek (Eds.), *Lesbian and ga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206-228). Thousand Oaks, CA: Sage.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g, J. S., & Garbarino, J. (201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homophobic bullying in schools: An application of the social-ecological framework.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 271-285.
- Hudson, W., & Rickett, W. A. (1980). A strategy for the measurement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5, 357-372.
- Johnson M, Brems C, Alford-Keating P. (1997). Personality correlates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34, 57-69.
- Kite, M. E., & Whitley, B. E. (1996).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ersons, behaviors, and civil righ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336-353.
- Mason, K. O., & Bumpass, L. L. (1975). US women's sex-role ideology,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1212-1219.
- McDaniel, M. J., Beier, M. E., Perkins, A. W., Goggin, S., & Frankel, B. (2009). An assessment of the fakeability of self-report and implicit personality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682-685.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ufioz-Plaza, C., Quinn, S. C., & Rounds, K. A. (2002).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high school environment. *The High School Journal*, 85, 52-63.
- Murdock, T. B., & Bolch, M. B.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oor school adjustment in lesbian, gay, and bisexual(LGB) high school youth: Variable and person-centered analys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2, 159-172.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358-445.
- Parrott, D. J., Peterson, J. L., Vincent, W., & Bakeman, R. (2008). Correlates of anger in response to gay men: Effects of male gender role beliefs, sexual prejudice, and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9, 167-17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Roets, A., Van Hiel, A., & Cornelis, L. (2006). Does materialism predict racism? Materialism as a distinctive social attitude and a predictor of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 155-168.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Sakallı-Uğurlu, N., Yalçın, Z. S., & Glick, P.

- (2007). Ambivalent sexism, belief in a just world,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Turkish students'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ex Roles, 57*, 889-895.
- Schope, R. D., & Eliason, M. J. (2004). Sissies and tomboys: Gender role behaviors and homophobia.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16*, 73-97.
- Singer, T. (2006). The neuronal basis and ontogeny of empathy and mind reading: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0*, 855-863.
- Teachman, B. A., Gapinski, K. D., Brownell, K. D., Rawlins, M., & Jeyaram, S. (2003). Demonstrations of implicit anti-fat bias: the impact of providing causal information and evoking empathy. *Health Psychology, 22*, 68-78.
- Turner, R. N., Hewstone, M., & Voci, A. (2007). Reducing explicit and implicit outgroup prejudice via direct and extended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69-388.
- UNESCO. (2012).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Vescio, T. K., Sechrist, G. B., & Paolucci, M. P. (2003).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empathy arous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455-472.
- Wahlund, T. R. (2015). *A study of the association among homophobia, empathy, and mindfulness*. Unpublished dissertation manuscript. Indian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einberg, G. (1971, July 19). *Words for the new culture*. Gay.
- Whitley, B. E., Jr., & Ægisdóttir, S. (2000). The gender belief system,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Sex Roles, 42*, 947-967.
- Whitley, B. E., Jr.,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44-170.
- Wright Jr, L. W., Adams, H. E., & Bernat, J. (199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omophobia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1*, 337-347.

원 고 접 수 일 : 2016. 10. 10.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12. 05.

최종 게재결정일 : 2016. 12. 06.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ffective Empathy on the Relation between Authoritarianism,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and Homophobia with Secondary School Teachers

Eunha Kim

Ajou University

Yun-Jeong Shin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ntecedents of homophobia in a sample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that th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homophobia and the affective empathy moderated the link between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and homophobia. The results suggested that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homophobia.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affective empathy on the link between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and homophobia was significant. For those with high levels of affective empathy, the correlation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homophobia was more positive. In addi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with the higher level of emotional empathy, but not with the lower level of emotional empathy. Given thes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for developing teacher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ompeten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condary school teachers, authoritarianism,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affective empathy, homophobia